

에 完存한 人骨이 發掘되었다고 하는데 石劍, 石槍, 土器片 등이 伴出되었다고 한다.

◎ 古宮所藏 遺物調査

文化財管理局에서는 그 管轄下에 있는 昌德宮, 昌慶苑, 德壽宮, 宗廟 등에서 所藏하고 있는 一切의 遺物을 調査 整備한다고 한다.

◎ 李忠武公 遺物陳列館 新築

忠南 牙山 顯忠祠所藏인 李忠武公 遺物은 國寶 四五六號로 指定되어 있는 바 今般 同遺物의 保存과 陳列觀覽을 爲해서 새로운 陳列館을 新築하리라 한다.

◎ 高麗時代 陶窯址發見

江華島의 支石墓를 調査中이던 蔡秉瑞氏 一行은 지난 三月 一日 江華郡 河帖面 富延里에서 高麗時代 陶窯址를 發見하였다고 한다.

◎ 慶州古蹟 詩文錄發刊

考古美術同人들은 慶州地方 古蹟에 關한 故人들의 詩文을 모아 考古美術資料 第一輯으로 發刊하였다. 總七十四面外에 附錄으로 東京館, 客舍, 養武堂, 佛國寺 等의 上樑文과 祇林寺事蹟記, 同寺重創記 二十六面이 있다. 同詩文錄은 二百部 限定版으로 實費로 配本한다.

慶州 石窟庵通信

鄭 明 鎬

近日에 이르러 大正二年부터 大正四年까지의 補修工事後 竣工圖面을 作成하였던바 있었던 것을 利用하여 洞內의 構造狀態를 調査하여 본즉 當時의 圖面과 現存狀態와 다른 몇가지점을 發見하였다.

一、圖面仰視圖에 보이는 天井 蓮瓣의 子葉, 연밭의 配列, 子房周邊 등에서 差異를 보이고 數値記入에도 差異가 있었다.

二、現在 洞入口向左 菩薩像에 鐵鏈이 懸려나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大正年間の 修理時 周壁像上端이 木들을 連結하는 『은장』으로 使用하던 곳에 木 랄로서 얇게 포장한 판제로 이곳에 濕氣와 물에 依하여 酸化된 鐵鏈이 懸려내린 것임을 確認하게 되었다.

三、또 天井蓮瓣의 中心點에서 내린 錐의 位置는 竈의 東西縱斷中心線上에 있지 않고 九分의 差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蓮瓣石을 爲始한 後面이 入口便으로 約十度 기울어져 있으며 洞內腰石(眼象石)의 level은 東北보다 西南이 約一cm 높다.

四、洞後部에서 排出되는 地下水의 量은 一月初旬에는 一分에 한 초롱이 나왔으며 三月 十四日에는 四十七秒에 二결론 三月 十九日 비가 나리기前에는 四十二秒에 二결론 비가 온다음 三月 二十一日에는 三十六秒에 二결론이 나왔다.

五、앞으로 昨年度末까지의 工事進行經過報書를 發表할 豫定이다.

六、三月 一日 文教部長官과 王學洙氏 等의 一行이 來訪하였다.

七、一九六二年 三月 十八, 九 兩日間 窟의 西南間 約 四十六尺地點 勾配에서 竈室의 天蓋石破片二點, 그 周壁石完形及破片 各各一點, 穹隆天井部의 光背向石 下板石一點, 前室의 腰石破片一點等이 發見採取하였다.

八、野外溫濕度測定을 爲한 露場을 設置하였다.

心源寺 普光殿의 童子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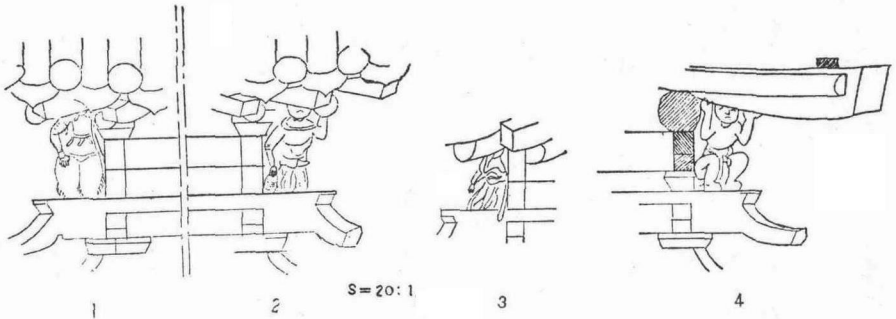
林 泉

第三卷 第四號 通卷二十一號

普光殿(黃海道 黃州郡)의 架構形式等 麗末(一三七八年頃) 作品으로서의 考察은 先學들에 依하여 이미 行해진 바로 全貌는 關係論文에 미루고여 기서는 看過되어온 童子像에 對하여야만 略述코자 한다.

普光殿 縱·橫斷面圖(國博藏)를 보면 殿四隅 귀제공 위에 머리와 한 팔로 추너를 떠받들고 있는 自然스러운 姿勢의 木造立像三軀(原來는 四軀)가 있었다.

縱斷面의 左側像(圖面三)은 바람에 날리는 듯한 皺文의 裙을 입고 앉 가슴이 벌어지는 上衣를 입었는데 그 자락 안으로 받쳐입은 폭넓은 옷



의 胸面이 살짝 보인다. 左手로는 추너를 받들고 右手는 자연스럽게 드리우고 있다.

橫斷面 左側像(圖面一)은 폭넓은 바지를 입고 胸部에 裙紐를 매고 앞섭을 풀어헤친 길직한 套衣를 걸치고 있는데 앞가슴 윗쪽으로 上衣의 나비형 매들의 끈이 잘막히 드리어졌다. 역시 左手로는 추너를 받들고 右手는 자연스럽게 구부러 넘적다리 부분에 손을 얹고 있다.

橫斷面 右側像(圖面二)은 앞섭이 터지지 않고 목덜미가 넓은 여유있는 上衣를 입고 팔소매를 걷어 부쳤는데 下衣는 그리 폭이 넓지 못한 바지를 입고 있다. 亦是 左手로는 추너를 받들고 있고 右手는 자연스럽게 내려서 圓盤形器을 쥐고 있다.

三軀가 모두 像高는 一·五尺內外에 不過한데 그 自然스러운 態度나 衣紋의 流麗함이 매우 能熟하여 조금의 無理도 없다. 圖面에는 遺憾스럽게도 顔面이 全部 보이지 않고 떠반은 팔과 손의 위치나 자세가 보이지 않으나 그런대로 重要한 意味를 暗示하여 주는 것은 像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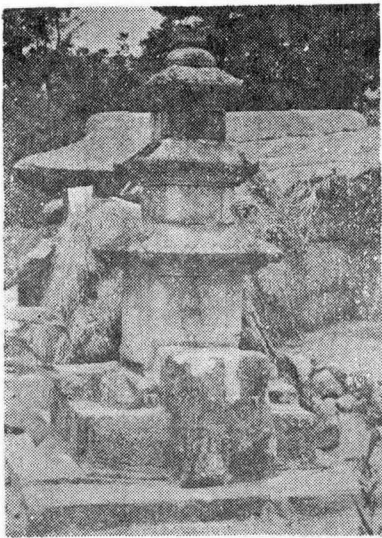
或是 童子像이 아닐까 하는데 있다. 『圖面二』에서 살짝 보이는 얼굴의 아래부분으로 미루어 보면 顔面은 등글고 살찐 모습인듯하여 斷俗寺大鑑國師塔碑(註) 등에 보이는 童子像의 그것과 흡사하며 몹시나 衣紋 등도 他例의 童子像들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다. 同殿正面門扉에도 이와 같은 얼굴을 가진 小像이 蓮華위에 나란히 세는데 衣文은 明確치 않으나

蓮莖을 휘어잡고 있는 態度라던지 한쪽 팔을 드리우고 있는 자연스런 몸맵시는 全혀 同系의 作品으로 보이는데 此像을 찬찬히 보면 觀音寺大雄殿裏面 中間門扉나 開心寺大雄殿門扉의 小像들과 더불어 佛畫나 後期木造童子像에서 보이는 모습을 여실히 지니고 있다. 더욱이 筆者가 過眼한 바 있는 江華傳燈寺大雄殿四隅의 추너를 두손으로 받들고 쪼고리고 앉아 있는 普光殿의 그것과 같은 木像(圖面四 參照)은 一見童子像으로 看取되고 있으므로 麗末鮮初의 童子像의 遺形을 이들에게서 發見할 수 있다고 보아도 좋겠다.

(註) 本誌二卷七號 山淸斷俗寺大鑑國師塔碑의 斷片條에 添加된 拓本 參照

溟州郡 連谷面の 三層石塔

李 載 昌



無盡寺라고 傳稱되어오는 古寺址에 高麗初期의 建立으로 推定되는 石塔一座가 遺存하는 바 일찌기 紹介된 일이 없는듯하다. 所在地는 江原道 溟州郡 連谷面 坊內里 校洞部落內이며 附近에는 瓦片 등이 散布되고 있을뿐 伽藍의 原狀은 곧 짐작할 수가 없었다.

塔은 方形의 三層으로서 總高約十一尺인 바 塔身에 比하여 基壇은 廣潤하고 二層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基壇部에서 特記할 點은 南